

초원과 태양의 찬가

(목장개설편) 2 회

국토개발 연구원

원 종 익

젓 짜는 소가 3마리 뿐이라서 당장은 손으로 짜도 되지만 조금만 더 붙어 나면 착유기가 필요한 터이고 겨울을 위한 사료준비, 초지에 목초 씨앗 뿌리기등 일은 얼마든지 있었고 어느 하나 돈 안드는 일이 없었다.

우선은 마을에서 목장일에 경험이 있는 일꾼을 한사람 고용하여 그와 들어서 서툰 일을 배워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이면 5시에 일어나 축사에서 소를 내몰아 솔질을 해 주고 아침 풀을 먹인 뒤 곧 젓 짜기를 시작하여 밤 사이 붙은 우유를 짜서 일꾼을 시켜 길가에 내어 놓게 하고 자신은 축사의 청소를 한 다음 아침 밥을 지어 먹는다.

밥은 전기 솥에 스위치만 넣어 두면 밥이 되고 국과 찌개는 석유 풍로에 끓이며 마른 반찬은 아내가 한주일분씩 해다 둔것을 먹을 수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소에게 솔질을 하여 방목지에 내어 몬다.

그 다음은 초지를 몇 단으로 나누어 알팔파와 이탈리아 라이 그라스의 씨를 뿌리고 풀베기 육수수도 심었다. 소들은 우선 산풀이 자란 곳에 내어 놓아 풀을 뜯게하고 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급수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오전 한때를 이렇게 바쁘게 보내고 점심을 먹고 나면 하오 2시가 넘는다.

점심 저녁을 따로 밥을 짓기 싫어서 아침에 세끼분을 한몫에 지어 놓고 보온밥통을 곁해 종일 두고 먹는다.

목장일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났다.

처음에는 해도 길고 힘도 들었지만 차츰 익숙해 지고 그래서 인지 밥맛이 달고 저녁에는 아무 저항 없이 곧 잠에 빠져 떨어졌다.

평소에 마시는 술도 혼자서는 먹히지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 담배도 차츰 멀어지기 시작 했다.

하루에 일한 것을 일지에 적고 소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꼼꼼하게 적어 두었다.

이런 저런 하는 가운데 한달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차츰 목장 일에도 손이 익어 갈 무렵, 그의 아내는 매주 한번씩 반찬과 옷을 날라 왔고 그는 한번도 집에 가 보지 못했다. 결국 목장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아이들의 얼굴을 한달이나 보지 못했다.

다행한것은 목장까지 전화가 들어와 있어 간단한 용무와 급한 전갈 같은 것은 전화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저런하여 김정수씨의 모습은 한달 전에 비하여 몰라 보게 변해 있었다. 봉급생활을 하던 시절의 단정한 용모와는 달리 산속의 강렬한 햇볕에 새까맣게 거울려 있었고 수염도 터부룩하고 작업복에 운동모자를 쓴 모습이 한달 전의 회사원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그 뿐 아니라 곰기만 하던 그의 손은 굵은 자국에 딱지가 앉고 험하게 변해 있었다. 걸으로 보기에 적어도 목장 인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전신에서 군살이 빠지고 팔 다리의 근육이 알차게 발달해 가고 있었다. 그의 이런 외모의 변화와는 달리 “목장이라는 것이 정말 처음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뼈

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이래서는 안된다.」

혼자 몇번이고 몇백번이고 이렇게 마음을 다져 먹지만 하루 일을 대강 끝내고 밤에 피곤한 몸을 자리에 누이면 아내의 얼굴,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회사원이었던 지난날의 일들이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가면 지금의 이 생활이 아무리 자신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초의 결심이 자꾸만 흐려져 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잠 못 이루는 밤이 지나가고 다시 새 아침을 맞으면 다시 결심을 다지게 되고 소 한마리 한마리 상태를 살피고 젖을 짜고 사료 준비를 하고 쉴 사이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때면 새로운 의욕과 결심이 강해지기도 했다. 그런 하루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어느날이었다.

큰 소 한마리가 어쩐지 좀 상태가 이상하다 싶더니 유방이 부어 오르기 시작했다. 유방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참고서를 찾아 보니 젖소에게 유방염은 아주 흔하게 생기는 병이며 젖꼭지에서 세균이 감염 되는 수도 있고 그 밖의 여러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다른 소에 전염 되기도 하고 특히 유방염이 걸린 소에서 짠 우유는 심하면 버려야 하며 납품하더라도 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었다.

가까이에 있는 '수의사에게 전화로 상태를 이야기하고 왕진을 부탁했다.

수의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 와주었다.

상태를 보고 유방염에 걸린 소에게 주사를 놓고 약을 준 다음 아직병의 징후가 보이지 않은 소에게도 예방이라면서 약을 주고 돌아 갔다.

그런데 왕진료가 약값, 주사를 합하여 일금 3만원이었다. 그것도 처음 시작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깎아 준 금액이라고 했다.

소의 병 한번 보이는데 3~5만원이 시세라고 한다.

유방염은 다음날 부터 차도가 있고 이틀을 계속해서 약을 먹었더니 3일째 부터는 낫았다.

소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에 갔다. 수의약국에 들러 몇가지 간단한 치료약을 구하고 주사약도 몇가지 샀으며 주사기 소독기등도 갖추었다. 앞으로는 수의사의 손을 빌지 않고 간단한 치료는 자신이 할 요량이었다. 처치법이나 치료법에 관한 전문서적도 몇가지 구했다.

그 길로 집에도 들렀다.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아내가 집안 일을 하고 있다가 반가워 하면서도 깜짝 놀란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에요?」

「무슨 일은...소에게 병이 생겼을때를 위하여 약을 몇가지 사러 온것이지...집에는 별일 없오」

「집이야 아이들이 다 학교 갔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는 오랫동안 도시에 있는 아늑한 집에서 차도 마시고 그 길로 목욕도 가고 좀 기분을 풀었다.

아이들이 돌아 왔다.

「아빠!」

아빠 품에 달려드는 딸아이를 안고 자신의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실감 했다.

아들 아이도 돌아 왔다.

네 식구가 오랫동안 식탁에 둘러 앉아 저녁 식사가 시작 되었다.

「이것이 집이고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정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아빠 아닌것 같애... 몰라 보겠어」

딸 아이의 말이다. 또 이런 말도 했다.

「아빠한테서 냄새 나, 소 냄새 나」

그는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불과 한달 남짓한 사이에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소들이 잘 있는지...?」

하는 걱정이 생겨 이제 차츰 “낙농인”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며 웃음을 자아 냈다.

은 식구들이 자고 가라고 말하는 것을 뿌리치고 시외 버스를 타고 어두운 밤을 목장에 돌아왔다.

밤길을 10리나 걸어서 목장에 당도 하자마자 곧 축사의 문을 열고 6마리의 소 식구들을 푸레쉬로 하나하나 비추어 보았다.

한가하게 누워서 새김질을 하고 있는 소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무사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안도와 아울러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 하면서 방에들어 가 자리에 누웠다.

하루의 피로가 전신을 엄습해 왔다.

가정을 떠나서 소와 함께 사는 지금의 생활을 “왜? 누구를 위해서”라고 되 새겨 볼 때 그 이유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굳이 따진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하나의 「고집」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이 우스워졌다.

첫손님과의 대화

그런 가운데 6월 들어 어느 화창한 일요일, 이 목장에 처음으로 손님들이 찾아 들었다.

손님이래야 김정수씨의 두 아이들과 그들의 친구 세사람등 어린이가 다섯이고 그들의 어머니 두사람이었다. 김정수씨의 부인이 서둘러 이웃의 아이들과 그의 어머니들을 데리고 목장 구경을 온것이다.

딸 아이의 친구들은 모두 국민학교 6학년이어서 그들의 눈은 목장을 신기하게 살펴 보고 소를 이상하게 바라 보았다.

소들은 이 꼬마 손님들을 무심히 쳐다보며 유유히 꼬리를 치고 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자연 김정수씨는 목장의 안내역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어린이들의 천진한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아저씨 소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풀을 먹지 제 힘으로 저 산에 올라가 마음대로 풀을 뜯어 먹는단다」

「추위 되면요? 겨울에는 풀이 없잖아요?」

「그 때는 여름에 풀을 베어서 말려 두었다가 먹어야지, 볏짚도 먹고...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는 저기 저 산에 풀을 가꾸어 그것을 베어다 말려서 겨울철 먹이를 많이 만들어 두지」

「소가 물면 어떻게 해요」

「소는 온순한 가축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물지 않아, 단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뒷발로 차거나 뿔로 받거나 하지」

「저 소는 왜 저렇게 배가 크지요 혼자서 많이 먹었나봐...」

「그게 아니고 저 소는 지금 아기를 가지고 있단다. 다음 달이면 송아지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부르지」

「아저씨 저 소는 젖통이 저렇게 큰데 이쪽 소는 왜 저렇게 작아요?」

「웅 젖통이 큰 소는 지금 우유를 짜고 있는 소이고 젖통이 작은 소는 아직 우유가 나지 않기 때문이야.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언제 가면 우유를 짜요?」

「이제 더 자라서 아기를 가진 뒤 송아지를 낳아야지, 그래야 젖이 나올것 아니야」

「송아지를 낳지 않으면 젖이 안나요?」

「그래 사실은 송아지에게 먹이기 위하여 나는 젖을 사람이 먹는 썸이지」

「그럼 송아지는 무얼 먹어요?」

「송아지에게는 따로 송아지용 분유가 있어요. 그것을 젖병에 넣어서 먹이지」

「아이 불쌍해, 송아지도 엄마 젖을 먹으면 좋을 텐데...」

「아저씨,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 저요?」

「저기 보이는 저 푸른 풀을 이 젖소가 먹고 젖소는 그것으로 우유를 내는 것이지. 풀은 태양 즉 햇볕을 받아서 자라고 소는 그 햇볕 아래서 풀을 먹으니까 말하자면 풀과 햇볕과 소의 3박자가 합하여 우유가 되는 썸이지...」

어린이들의 천진한 질문은 끝이 없다.

그러나 여인네들 세사람의 대화는 그렇지 않다.

「젖소 한마리에 얼마나 하우?」

「지금 우유를 짜고 있는 큰 소는 300만원이 넘나 봐요. 저기 보이는 중소는 200만원 한데요.

「어머 소 값만 해도 부자예요. 우유는 잘 팔려요? <계속>